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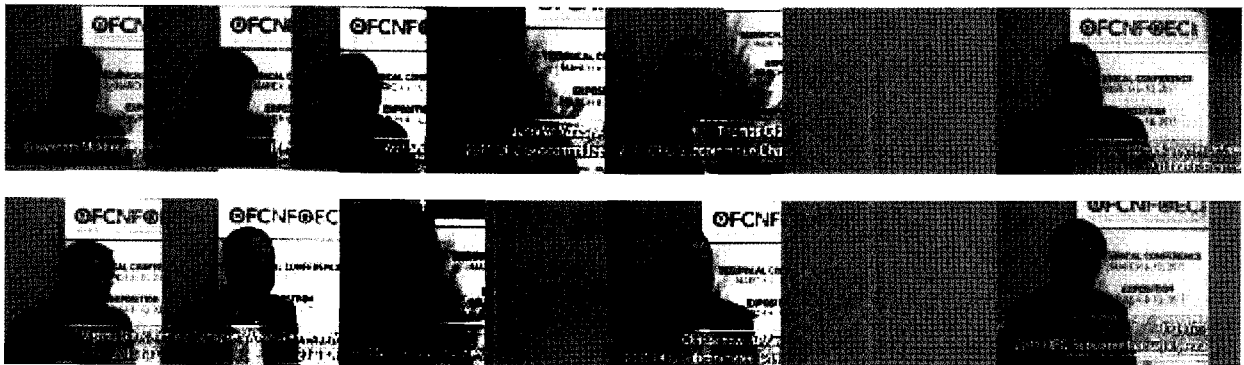
# OFC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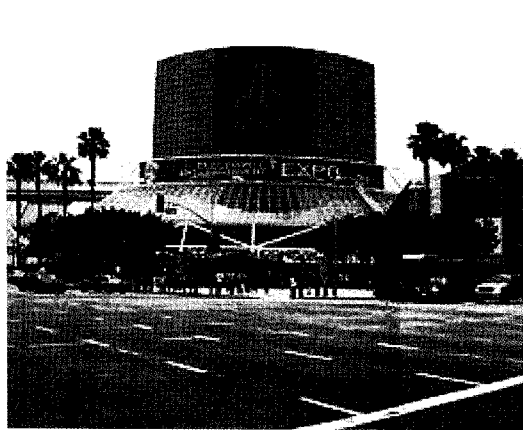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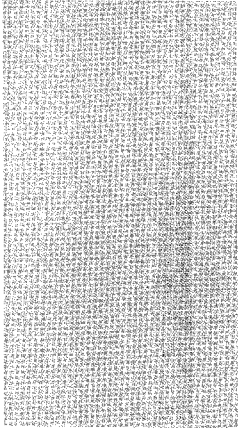
##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and Exposition

March 6~10, 2011

OFC 2011 그린산업 미래를 보다.

전자신문사 기자 서인주 (ipg331@hanmail.net)





- 광융합 등 세계 그린산업 미래를 보다.
- 광통신전시회 3월 6~10일 미 LA서
- 터치패널세션, 신생광학워크샵 등 눈길

현재 광산업은 광통신과 LED, 광융합산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변수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의 기술력을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광통신 전시회인 'OFC 2011'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and Exposition)는 향후 국내외 광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광관련 연구진과 바이어, 기업, 언론 등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기술세션과 기술브리핑, 서비스프로바이더 미팅, 광섬유스위치, 신제품 소개센터, 광학 비즈니스포럼, 그린터치패널 세션, 신생광학 워크샵 버블 10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린터치패널 세션과 광학비즈니스포럼 등은 세계 각국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융합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뉴질랜드, 호주, 중동지역 등이 잇따라 IT분야 연계 광통신인프라구축 사업을 뉴딜정책으로 발표함에 따라 신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OFC 2011' 홈페이지에는 미국 등 주요 광 관련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은 단품 형태의 부품 조달이 아닌 대규모의 토털 솔루션 공급을 타진하는 문의가 많았다. 국내 중·소형 광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단품으로는 더 이상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솔루션 형태의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품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해외시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주변 환경변화와 기회를 선점하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마케팅활성화 지원 정책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기업들이 국내외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신규 수요 창출 프로젝트 사업단 등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광역 경제권 시대에서 대·중소기업 간 융합 및 상생협력 마케팅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할 시점이다.